

## 한·중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통주택 공간 특성 비교 분석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for Traditional Housing in Modernization Process in Korea and China

양 비\*  
Liang, Fei

박현수\*\*  
Park, Hyeon-Soo

윤혜경\*\*\*  
Yoon, Hea-Kyung

#### Abstract

Housing is a cultural tool which enables one to see through a certain generation, and the types of housing in a specific cultural area are both physical and spiritual results formed by life activities. Therefore, housing, the center area for the human life, is a bowl, putting various meanings of life into the complicated environment. Its formal and spacial variety is a result of interaction in human life. This study analyzes fundamental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traditional housing by comparing those in city of Seoul and Shang-hai.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many differences have been found in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and Shanghai despite of high similarity in culture and ideology. This results from a same Confucian culture that accepts the feng shui theory which has evolved through different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using cultures in two cities by analysing the attributes of housing data from selected traditional housing types in Seoul and Shanghai. Also, issues of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re studied to provide important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ousing environment of both cities.

Keywords : Traditional Housing, Space Composition, Comparative Study

주요어 : 전통주택, 공간구성, 비교연구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중국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양국의 주거문화는 19세기말 청일전쟁 이후 약 100여 년간 단절되었다. 그 기간 한국과 중국은 일제강점기와 내전 등의 암흑기를 겪은 후 한국은 자본주의로, 중국은 사회주의로 서로 다른 국가 체제 안에서 발전해왔다. 특히 양국의 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상하이에는 모든 경제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현대적인 도시, 국제화 도시로서 그 가치를 더해왔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생활환경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은 인류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된 건축유형이다. 또한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건축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건축유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문화는 이상향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형성된 결정체로서 생활의 근본이 되어 한 시대의

문화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환경은 자연적인 조건에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모든 인문,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성을 지니며 형성되어온 삶의 흔적이다. 따라서 주택은 한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구조와 시대상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계승되는 건축유형으로서 건축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관심을 받아왔으며, 그 지역 및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산물로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한·중 전통주택은 일정한 차이 속에서 각자의 민족성과 역사 등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게 되었다.

서울과 상하이는 양국의 역사적, 경제적 중심지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또한 현대의 서울과 상하이는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가장 집약된 중심도시로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두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주택 공간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주거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서울과 상하이의 주거문화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양국의 주거문화와 환경적 특색을 파악하고

\*정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건축학박사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전임강사, 건축학박사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상호 보완 요소를 찾기 위해 연구 범위를 근대화 이전의 지배계층 혹은 상류계층이 거주하였던 서울의 반가와 상하이의 사합원, 근대화 이후의 서울의 도시형한옥과 상하이의 이농주택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주택은 봉건사회가 붕괴된 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의 경계선에 존재하였던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된 전통주택이라 할 수 있는 도시형한옥과 이농주택이 개발되는데 전통민가와 함께 많은 영향을 주었던 반가와 사합원을 연구하여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의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과 상하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통주택을 연구하는데 배경이 되는 전제조건과 분석의 틀을 선정한다. 둘째, 연구하고자 하는 4가지의 주택의 공간구성 및 배치에 대하여 비교분석 한다. 셋째, 분석된 주택의 특성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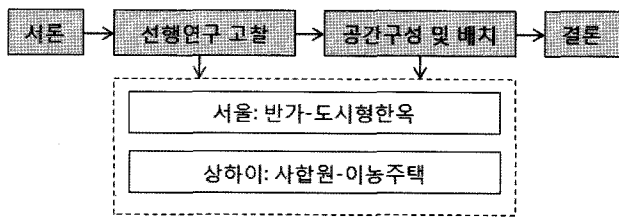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 II. 한·중 전통주택의 공간특성분석의 틀

### 1. 근대화과정에서의 전통주택

한국의 반가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양반으로 일컬어지는 지배계층인 신진사대부들이 거주하였던 대표적인 주택으로 조선건국 이후 전국 각지에 전파된 주거유형이다. 중국의 사합원은 한족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이천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는 주거유형이다. 사합원은 상류계층의 주택으로, 주로 귀족, 상인, 부농 그리고 지주 등이 거주했던 주택이다<sup>1)</sup>. 이처럼 반가와 사합원은 그 시대의 지배계층이 주로 거주하였던 주거유형으로 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국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과밀화로 전통주택은 개량되거나 도시구조에 맞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시형 한옥과 중국의 이농주택이 출현하게 된다. 이 두 주택은 도시의 한정된 필지로 구성된 공간구조에서 대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국의 도시형 한옥은 1930년 이후 소위 집장사들에 의

해 공급된 주택으로 경기도 지역의 민가와 반가의 공간구조와 의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개발된 주택 유형이다. 중국의 이농주택은 1870년 이후 상하이의 조계지에서 영국 상인들에 의해 공급된 주택으로 유럽의 연도형 주택과 강남지역의 전통민가, 사합원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개발된 주택유형이다. 즉,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은 양국의 전통 민가와 지배계층의 상류주택 등 여러 가지의 주택유형이 결합되어 개발된 근대화 주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에 영향을 미친 주거유형 중, 반가와 사합원은 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배계층 및 상류계층이 거주했던 주거유형으로 신분계급에 의한 가사규제가 철폐된 이후, 이상적인 주거의 원형으로서 자리잡고,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된 주택인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의 공간구성에 필요한 개념적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가와 도시형한옥, 사합원과 이농주택의 공간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여 양국이 겪었던 근대화 물결에 의한 주택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중에 한국 또는 중국의 전통주택에 대한 연구와 한국과 중국의 전통주택을 비교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의 전통주택에 대한 선행연구에 분석의 틀을 고찰해보면 신경화(2003)는 반가의 공간구성 분석 방식을 공간의 구분, 공간의 연속, 공간의 연계, 진입방식, 평면형식으로 분류하여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정곤(1995)은 도시형한옥의 유형분석 연구에서는 형태 및 배치, 평면의 기능(주동선 포함), 재료 기술 등에 따른 형태, 형식과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손세관(1996)의 전주시의 도시형한옥 평면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건물배치에 따른 유형, 안채의 유형, 계보를 3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최장순(2003)은 사합원의 공간구성의 특징에 대해 공간배치, 평면구성, 평면유형, 공간특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한필원(1998)은 상하이 이농주택의 시기적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지구조, 주거공간요소, 주거공간 구성방식, 재료와 구조방식, 환경 조절 방식으로 5가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에서 배용성(2005)은 한국, 중국, 일본 모자형 전통주택 비교분석을 공간배치 특성에서 전체적 형상, 채와 분화 여부, 공간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성 및 연결방식, 위계성, 엄격성과 융통성으로 분류하였다. 강희(2003)는 한국 양진당과 중국 사합원의 공간사용특성(외부공간특성)에서 배치방식, 영역성, 단위건물구성방식, 내향적 폐쇄성과 개방적 외향성, 공간연계방식을 5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전통주택의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 구성, 동선 체계, 공간 특성(개방성·폐쇄성, 가변성, 확장성)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틀로 선정하였다.

1) 손세관(2002), 깊게 본 중국주택, 열화당, pp. 31-32



그림 2. 풍수개념  
출처: 우리의 옛집 이야기, 열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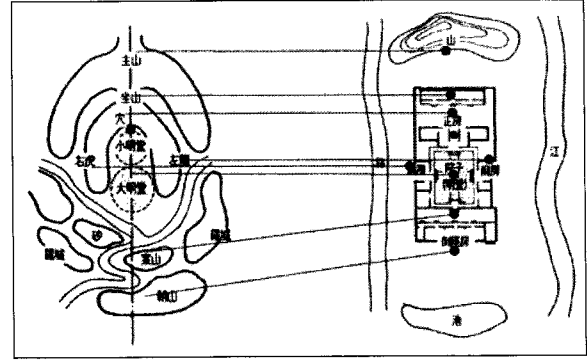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풍수이론 공간구조  
출처: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III. 한·중 전통주택 발전과정에 따른 공간특성분석

### III. 한·중 전통주택 발전과정에 따른 공간 특성 분석

#### 1. 반가와 사합원

##### 1) 공간구성

반가(班家)와 사합원(四合院)은 풍수이론<sup>2)</sup>의 영향을 받아 공간이 구성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같은 이론이 적용된 주택임에도 다른 해석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반가는 풍수이론의 좌향론(坐向論)에 의해 좌향이 결정되며, 좌향은 안대(案對)의 선택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빼어난 모양의 산봉우리를 안대로 삼아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개의 건물은 정면에 뚜렷한 안대를 지니며 이러한 안대의 축에 맞추어 배치와 좌향의 축이 결정된다<sup>3)</sup>.

이를 기초로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주영역을 뚜렷이 규정하되 그것을 주변의 공간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랑채 혹은 별당의 영역은 주변의 마을 공간과 경관으로 시각적,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sup>4)</sup>. 자연과 인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관계를 중요시 하는 사교에 의해 배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기본적인 배치 개념에서 각각의 특색을 보인다.

반가(班家)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각각의 채(棟)들이 적절한 관계에서 형성된 '채(棟)들의 집합체'이다. 채는 사랑채·안채·행랑채·사당·별당 등으로 형성되며, 각각의 특성을 갖는 간(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와 마당은 위

치와 성격에 따라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행랑채와 행랑마당 등으로 짝을 이룬다. 이렇게 채와 짝을 이루는 마당은 환기, 채광 그리고 일조량 확보의 기능을 수행하며, 채의 성격에 따라 휴식처, 옥외작업장, 의식행사장 등으로 사용된다. 즉, 마당은 채의 기능에 맞추어 채의 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5)</sup>. 이러한 공간은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 따라 신분, 성별(性別) 그리고 세대(世代)에 따라 위계질서를 보인다. 신분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사당으로 구성된 주인의 영역과 문간채·행랑채의 하인들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성별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며 별도의 출입구를 갖는다. 이는 봉건제도에 의한 신분의 구별과 유교사상에 의한 성별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구성은 마당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거주 영역을 뚜렷이 규정하되,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같은 유교문화권에서 형성된 사합원 또한 성별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결혼 후에는 공간의 구분이 중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가에서는 결혼 후에도 뚜렷이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림 4. 사합원 중정  
출처: 中國傳統民家寫真

2) 풍수이론: 생기(生氣)를 받아들여 거주자에게 복을 부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택의 적절한 향과 배치, 조정 및 제어를 통해 일조와 통풍 등 주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동.

3)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관한 지리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강인호 외1인(2000),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p. 138

사합원 또한 풍수이론의 좌향론(坐向論)에 의해 배치가 결정되지만 남북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가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사합원은 중

5) 박홍배(1986),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pp. 27-28

정을 기준으로 네 동의 건물을 사방(四方)으로 둘러싸여 형성되어진 口자형으로 형성되어있다. 북측의 정방(正房)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동·서측에 상방(廂房), 남측으로 길에 면하는 바깥쪽에 도방(倒房) 또는 도좌방(倒座房)이 설치되어있다.

이들의 건물들은 풍수지리이론에 의해 각각의 의미가 부여된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후조방은 좌산(坐山)에 해당하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좌방은 조산(朝山), 수화문은 안산(案山)에 해당한다. 중정의 좌측 상방은 청룡(靑龍), 우측은 백호(白虎)로 상징된다. 이러한 공간들과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은 명당(明堂)이 되며, 명당의 북쪽에 위치한 조당은 용혈(龍穴)이 되어 조상의 위폐를 모시며, 가족구성원의 경조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사합원의 공간구성은 공허부와 실체부와 적절하게 병립(竝立)되어있다. 즉, 무(無)와 일컬어지는 중정(中庭)과 유(有)로 일컬어지는 각각의 건물이 연속과 반복이 사합원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이 된다. 또한 중정은 각각의 건물을 연결하는 기능과 폐쇄된 공간을 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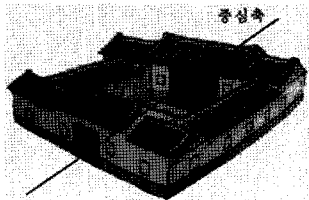


그림 5. 사합원의 대문모습  
출처: 중국 사이트 www.image.baidu.com

상하이 지역을 포함한 강남지역의 사합원은 북방의 사합원과 다른 특색을 보인다. 북방의 대표적인 사합원의 대문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에 강남 사합원의 대문은 중앙 축에 위치하여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북방에서는 볼 수 없는 2층형 사합원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다. 이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여 덥고 습윤한 기후조건에 적응하며 변화된 형태로 생각된다.

2) 동선체계

반가는 마당과 마당이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보인다. 이러한 동선체계는 각각의 마당을 중심으로 순환형 동선체계를 보이며 다양한 동선을 보인다. 반가의 주동선은 행랑채의 바깥마당에서 시작되어 행랑마당-사랑마당-안마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체계를 보인다. 하지만 사랑채는 공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독자적인 대문을 갖는다. 안채는 집안일을 도모하기 위해 행랑채와 직접 연결되는 동선과 뒷마당을 통해 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환동선이 형성된다.

사합원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중정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 동선체계를 보인다. 기본적인 대문에서 시작된 중심축에 배치된 중정과 중정을 관통하여 조당까지 이어지는 주동선을 중심으로 각 실을 연결하는 구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에는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며 좌우로 사적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중정마다 가지고 있는 회랑에 의해 연결된다. 측면에는 피농(避弄)<sup>7)</sup>이 설치되어 부녀자와 하인들의 통로로 이용되었다.

3) 공간의 특성

(1) 공간의 위계성

일반적으로 영역을 설정하거나 공간을 구획할 때 위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전통사회를 지배하여 온 질서원리와 도덕적 가치관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대체로 지리적, 풍수적 조건에 의해 배치에 차이를 두거나 형태적으로 크기, 양식에 따른 수평적 위계와 고저 차에 의한 공간의 위계 등의 수직적 위계로 구분 된다<sup>8)</sup>.

반가의 수평적 위계성은 자연의 지세에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의식에 따라 좌우비대칭의 배치체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수직적 위계성은 지형과 채의 규모에 따라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며 대지의 고저(高底)차, 담장, 채에 의해 공간이 분리되지만, 계단을 통한 진입, 각 담장사이의 문을 통한 개방감을 이용한 배치와 구성으로 공간에 긴장과 이완을 통하여 연속성을 이루었다<sup>9)</sup>. 또한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아 성별, 신분 및 세대의 위계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의 성별의 구분은 결혼 후에도 별침을 할 정도로 엄격하다. 같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합원은 성별의 차이보다 대가족 제도에서의 가족 간의 위계로 인한 공간구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사합원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의 배치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축에는 사합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정과 조당이 설치되어 공적공간이 형성되어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사적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천자(天子)중심사상에 의해 형성된 ‘방위차서’로 공간의 사용 결정된다.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의 자리가 항상 북극성을 배경으로 하면서 모든 위치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북측에 정방이 설치되어 집안의 어르신이가 기거를 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장남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둘째아들이 기거한다. 남쪽은 도

7) 피농(避弄): ‘피해 다니는 골목’이라는 의미로 하인들과 여인들을 위한 별도의 통로. 전면이 좁고 뒤로 긴 형태로 사합원의 보편적인 공간요소이다.

8) 이배화(1998),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사학회 논문집, 14(2).

9) 신정화(200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작품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6) 손세관(2002), 넓게 본 중국주택, 열화당

좌방이 설치되어 하인들이 기거하는 구조로 북-동-서-남의 공간 위계를 갖는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사합원 뿐만 아니라 중국 대다수의 건축에 적용된다.

(2)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

반가는 내향적이며 폐쇄적인 안채와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사랑채가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합원은 건물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口자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내향적이며 폐쇄적인 구성을 보인다. 이는 외부로부터 침략에 대응하고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결과이다. 이러한 특성은 반가의 안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형성된 결과일 것이다. 중규모 이상의 사합원의 공간쓰임을 볼 때 바깥쪽 중정은 손님의 왕래가 가능한 공적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반가의 사랑채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반가는 주변의 자연지형과 잘 조화된 주택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과 사회적 지위의 확대에 의해 주택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넓은 마당을 이용하여 독채를 추가하거나 주변에 지형을 이용하여 채를 추가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형과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3) 공간의 확장성

사합원은 口자형을 기본으로 후면에 ㄷ자형의 삼합원이 설치되는 구조형식으로 확장된다. 기본의 口자 공간단위를 1진(進), 두 개, 세 개의 공간단위는 2진, 3진으로 부른다. 이는 고대중국의 유교적, 풍수적, 도교적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생활환경은, 중국의 정신세계가 가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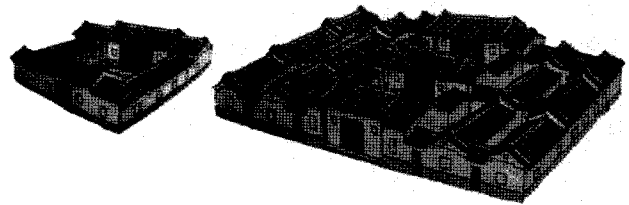


그림 6. 강남 사합원 확장 형식  
출처: 중국 사이트 www.image.baidu.com

중국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끼친 이 세 가지 요인은 중국의 주택을 중정과 건물이 일체화된 합원식 공간으로 구성되게 했고, 이러한 합원식 주택은 결국 가장 중요한 공간인 중정을 중심으로 무한히 공간적으로 증대해 나간다는 중국인의 ‘중화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sup>10)</sup>.

(4) 공간의 가변성

서울은 습윤 대륙성 기후에 속하며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봄, 가을에 비해 여름과 겨울이 긴 편이다. 여름에는 덥고 습한 기후조건을 보이며, 겨울은 한랭한 서북풍의 영향으로 인해 같은 위도의 지역보다 추운 편이다<sup>11)</sup>. 이러한 기후환경은 마루와 온돌이라는 두 가지의 바닥형식이 공존하는 주거유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좌식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온돌과 마루는 한, 냉, 온, 열의 조절에 유리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온돌은 북방 추운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매우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마루는 남쪽 고온 다습한 고장에서 시작되어 더위를 견디기 위해 개방성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부지방에 속하는 서울의 가옥에서는 이러한 특색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세

표 1. 반가(班家)와 사합원(四合院) 공간구성 비교표

형식	공간구성		동선체계	공간특성			
	구성	특성		공간위계	개방폐쇄성	가변성	확장성
반가 ㄷ형	·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행랑채와 행랑마당 별당	· 좌우비대칭 ·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 ·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	· 순환동선체계 · 바깥마당-행랑마당-사랑마당-안마당	· 공(公), 사(私)에 의한 분화 · 사회적 기능 (사랑채) · 가정적 기능 (안채) · 성별에 의한 분화 · 여성의 공간 (안채) · 남성의 공간 (사랑채) · 신분에 의한 분화 · 주인의 영역 (안채, 사랑채, 사당) · 하인의 영역 (행랑채, 문간채)	· 폐쇄성(안채)과 개방성(사랑채)의 공존 · 각각의 마당과 각각의 대청이 있어 개방적 평면을 보임	· 들어열개 개방법에 의한 계절에 따른 가변성 · 온돌과 마루의 영향	· 가족규모에 따라 채의 개수가 증가
사합원 口형	· 중정, 회랑, 정방, 상방, 청방, 도좌방, 후조방	· 좌우대칭 · 사상적 영향에 의한 공간배치 · 폐쇄적이며 내향적 성향	· 일방향의 동선체계 · 입구-도좌방-중정-중화문-중정-청방-중정-정방-후조방	· 공(公)사(私)에 의한 분화 · 사회적 기능(바깥쪽중정) · 가정적 기능(안쪽중정) · 방위에 따른 위계성 · 북→동→서→남 · 신분에 의한 분화 · 주인: 정방, 상방 · 하인: 도방, 후조방 · 수직적 분화(강남사합원) · 1층: 남성(공적인 공간) · 2층: 여성 및 가족	· 중정을 둘러싼 형태로 폐쇄형 구조	· 중정을 통한 폐쇄성과 개방성의 공존 · 유(有)와 무(無)의 공간 공존 · 실내 공간 기능에 따른 가변성	· ‘口’자 기본구성으로 반복 · 가족의 규모 및 공간의 용도에 따라 1진, 2진, 3진, 4진 등으로 확장

10) 진옥성(2008), 중국문화, 중국의 어제와 오늘, 세종출판사, p. 137

11)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월동안 두고 조금씩 서로의 장, 단점 지역에 맞는 형태로 절충해온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계절에 대응하는 구조로 창호들을 접어들쇠에 매다는 들어열개의 개폐 법에 의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손쉽게 가변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특히 반가나 궁궐의 침전의 창호들이 덧창, 쌍창, 갑창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물면자와 병풍이 더해짐으로써 개방적인 창호들이 곧 폐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공간은 전후좌우로 개방적인 흐름을 연속시키는 공간성을 특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의 공간적 관계에 있어서는 방과 방은 연속적인 일렬로 배치가 되어 미닫이문을 모두 열면 공간이 이어지며, 안마당과 대청, 뒷마당으로 연결된 공간의 형식으로 인해 강한 연속성을 느끼게 해준다.

사합원에서의 가변성은 실과 실 사이의 공간구획을 위한 벽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실을 구획하기 위한 벽은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으로 지거나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의 변화와 취향 등 상황에 맞추어 공간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변성을 확보한 반가와 다양한 공간 활용을 위해 형성된 가변성 확보에서 두 주택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5) 반가와 사합원의 공간 특성 비교정리

반가(班家)와 사합원(四合院)의 배치는 모두 풍수이론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다. 하지만 반가의 좌우대청과 사합원의 좌우대청이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풍수이론을 해석하는데 서로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다른 해석에 의한 배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가는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아 성별, 신분 및 세대의 위계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의 성별의 구분은 결혼 후에도 별침을 할 정도로 엄격하다. 하지만 같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합원은 성별의 차이보다 대가족 제도에서의 가족 간의 위계로 인한 공간구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 반가는 내향적이며 폐쇄적인 안채와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사랑채가 조화를 이루며 구성된 반면 사합원은 건물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ㄷ자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내향적이며 폐쇄적인 구성을 보인다. 이는 가족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성으로 생각되며, 반가의 안채에서 볼 수 있는 특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려 된다. 하지만 중규모 이상의 사합원에서 볼 수 있는 바깥쪽 중정은 손님들의 왕래가 가능한 공적인 공간으로 반가의 사랑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또한, 반가는 사계절의 영향으로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돌과 마루의 이질적인 재료가 공존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온돌난방에 유리한 폐쇄적인 공간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청의 개방된 공간의 형성을 위해



그림 7. 사합원 실내 칸막이  
출처: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개발된 들어열개 개폐 법에 의해 공간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사합원은 공간의 다양성을 위해 방 사이에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공간 활용의 가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합원은 중정을 중심으로 한 ㄷ자형의 기본구성에 ㄷ자형의 삼합원이 결합하면서 공간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는 대가족제도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확장에 의한 공간이 중정을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2.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里弄住宅)의 비교분석

1) 공간구성

서울의 가회동과 보문동 등에 공급되었던 도시형 한옥은 가로에 면한 가로형 주택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ㄱ자형의 안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일자형 또는 ㄴ자형의 바깥채<sup>12)</sup>가 결합된 구성을 보이며, ㄷ자형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62% 정도로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sup>13)</sup>.

도시형한옥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그리고 측간까지 한정된 필지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채의 요소는 유지되는 대신 간의 크기를 줄여서 배치되었으며 사랑채, 행랑채 등은 바깥채로 함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채가 결합하여 ㄷ자 또는 ㄱ자형의 바깥채로 함축되었다.

이농주택 역시 정해진 필지에서 지어져야 하는 제약조건에 의해 사합원의 원형은 하나의 건물로 압축되어 지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사합원의 공간구성 개념은 유지되어 있는 공간구성의 특성을 보인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문, 천정(天井)<sup>14)</sup>, 객당으로 구성된 공적공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실들이 구성되어 대청되는 구성을 보인다. 이농주택은 보편적으로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당에

12) 바깥채: 반가의 행랑채라 할 수 있으며, 사랑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13)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47

14) 청정(天井): 전통 사합원에서의 중정의 형식으로 더 좁은 공간이며 습하고 더운 상하이 기후 때문에 청정은 이농주택에서 주로 통풍, 채광의 역할로 구성된다.

표 2. 도시형한옥과 이농주택 공간구성 비교표

	공간구성			동선체계	공간특성			
	형식	구성	특성		공간위계	개방폐쇄성	가변성	확장성
도시형한옥	□자형 주택	· 1자형의 안채와 일자형 또는 L자형 바깥채가 집합되는 구성	· 좌우비대칭 ·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 ·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	· 대문-문간채-마당-안채 및 바깥채	· 안채 · 안방, 건넌방 순으로 집안의 어르신이 기거 · 집안의 중심적 역할 · 바깥채 · 집안에서 위계가 낮은 가족이 기거 · 안채에서 부족한 공간을 충족하는 역할 · 셋집, 셋방으로 활용	· 마당, 대청의 연계로 채광, 통풍 및 개방성 확보 · □자형 주택으로 폐쇄형 구조	· 필지 안에 건축되는 특색으로 인해 개방과 폐쇄의 가변성은 퇴색됨	· 수평적확장 불가
이농주택	일체화된 세장형 주택	· 전통 사합원 배치형식 ·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 구성	· 좌우대칭 · 사합원의 공간 구성이 유지 · 폐쇄적이며 내향적 구조	· 대문-천정-객장-계단실-후천정-주방 · 대문-천정-객장-상방 · 대문-천정-객장-계단실-2층상방	· 1층 · 공적인 공간으로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공간 · 남성 혹은 위계가 높은 가족이 기거 · 2,3층 · 사적인 공간으로 가족의 침실의 기능 · 주로 여성과 노인, 아동이 기거하는 공간	· 세장형 평면유형으로 폐쇄형 구조 · 천정을 통해 폐쇄성 완화	·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실간의 가변성 유지	· 수평적확장 불가 · 2,3층으로 수직적 확장

는 계단이 설치되어 수직적 이동이 이루어져 수평적인 공간과 수직적인 공간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다. 대문이 중심축에 놓이고 대문을 들어서면 천정이 나온다. 천정에 면하여 가운데에 객당이 놓이고 좌우에는 각각 상방이 배열되어 정옥(正屋)<sup>15)</sup>을 이룬다. 정옥은 높은 층고를 확보하여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실들로 구성된다. 객당의 뒷면에는 횡으로 계단이 설치되며 그 뒤에 위치한 후천정을 사이에 두고 주방, 창고 등 보조 실들이 있는 부영이 구성된다. 2층, 3층은 침실들로 구성되어 주로 취침 등의 생활에 이용된다.

2) 동선체계

도시형 한옥은 반가에서 볼 수 있었던 특성인 여러 개의 마당이 하나로 압축되면서 중정형 마당으로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가에서 볼 수 있었던 순환형 동선체계는 마당 중심형 동선체계로 변화하였다. 대문에서 시작된 동선은 마당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간으로 분배된다. 안채에는 대청이 설치되어 있어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을 연결해 주고 있다. 바깥채는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방과 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농주택 동선체계는 2-3층 구조로 동선과 수평동선이 존재한다. 이농주택의 수평동선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문-천정-객당-계단실, 후천정-부영으로 형성된 공적공간으로 형성된 공적공간으로 형성된 일 방향 주동선이 존재하며, 주동선에서 각각의 실로 분배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합원에서 볼 수 있었던 동선체계로 건물의 규모와 형식은 달라졌어도 사합원의 공간구성개념이 이어져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간의 특성

(1) 공간의 위계성

도시형 한옥은 조선시대의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신분

의 위계와 함께 성별의 위계역시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한옥에서도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의 구분이 무의미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맥은 유지되어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간의 위계 또한 무의미 하게 되었지만 집안의 주인이 기거하게 되는 안채의 안방을 공간의 중심으로 여기는 통념은 유지 되었다. 그리하여 안채-바깥채, 그리고 안방과 건넌방으로 위계가 결정된다. 이러한 위계는 자본 사회 속에서 바깥채를 임대하게 되면서 가계의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집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형상으로 인해 안채는 주인집, 바깥채는 셋집으로 위계가 또 한 번 결정되게 된다.

이농주택은 사합원의 '방위차서'에 의해 공간의 위계성이 유지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간의 사용도 사합원에서 볼 수 있었던 북-동-서-남의 순서로 위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위치한 상방의 북쪽부터 서열대로 실이 분화된다. 또한 1층은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손님접대등 공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며 2, 3층은 여성과 어린 자녀들, 노부모등 가족중심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다.

(2) 개방성과 폐쇄성

도시형 한옥은 가로에 접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대지에 중정을 가지고 있는 □자형 주택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된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중정과 대청의 오픈공간은 폐쇄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여 반가의 개방적인 특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농주택은 불규칙한 형태의 대지에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세장형 평면유형을 보이며 가로에 면한 가로형 주택이다. 사합원의 중정이 사라지고 천정과 객당을 통해 흔적이 남아있다. 중정의 오픈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천정은 보편적으로 객당을 전후로 하여 천정과 후천정으로 구성되어 주택 내에 두 곳의 오픈공간이 존재하지만 높은 벽으로 둘러쌓여 폐쇄된 공간으로 인

15) 정옥(正屋): 정옥은 가운데 주체에 위치한 방옥(房屋)

표 3. 전통주거 공간배치 및 구성의 특성 비교 분석 표

▣ 사적인 공간 □ 공적인 공간

구분	평면도	다이아그램 (배치와 동선체계도)	내용
반가 (연경당) <sup>1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이론-좌향론(坐向論)</li> <li>· 一, 二, 三형</li> <li>· 좌우비대칭</li> <li>· 안채, 사랑채, 별당, 행당채, 마당</li> <li>· 바깥마당-행당마당-사랑마당-안마당</li> <li>·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li> <li>· 영역간의 연계 - 마당</li> <li>· 실내昭(연계-툃마루, 대청)</li> <li>· 들어열개 개폐 법에 의한 제절에 따른 가변성</li> <li>· 공(公)사(私)에 의한 분화</li> <li>· 성별, 신분에 의한 분화</li> </ul>
사합원 <sup>1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이론-좌향론(坐向論)</li> <li>· 口형</li> <li>· 정방, 상방, 청방, 도좌방, 후조방, 중정</li> <li>· 입구-도좌방-중정-중화문-중정-청방-중정-정방-후조방</li> <li>· 좌우대칭- 남북방향을 중심축으로 대칭</li> <li>· 폐쇄적이며 내향적 성향</li> <li>· 영역간의 연계 - 중정</li> <li>· 폐쇄성과 개방성의 공존</li> <li>· 실내 공간 기능에 따른 가변성</li> <li>· 공(公)사(私)에 의한 분화</li> <li>· 방위에 따른 위계적 분화</li> <li>· 신분에 의한 분화</li> <li>· 수직적 분화(강남 사합원)</li> <li>· -1층은 남성(공적인 공간) -2층인 경우는 2층은 여성 및 가족</li> </ul>
도시형 한옥 (가회동) <sup>1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필지</li> <li>· 1층</li> <li>· 卍자형의 안채와 일자형, ㄷ자형 바깥채가 집합되는 구성, ㄷ, ㄱ자형 주택</li> <li>· 대문간, 방, 건넌방, 대청, 안방, 부엌, 중정</li> <li>· 대문-문간채-마당-안채 및 바깥채</li> <li>· 좌우비대칭</li> <li>· 폐쇄적인 마당</li> <li>· 마당과 대청을 통한 채광, 통풍, 동선의 연결</li> </ul>
이농 주택 (公順里) <sup>1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필지</li> <li>· 2-3층</li> <li>· 전통 사합원식 배치형식</li> <li>·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 구성</li> <li>· 일체화된 세장형 주택</li> <li>· 상방, 상 하 상방(차간-次間), 천정, 계단실, 부엌</li> <li>· 대문-천정-객장-계단실-후천정-주방</li> <li>· 좌우대칭</li> <li>· 폐쇄적인 천정</li> <li>· 통풍을 위한 천정-객장-후 천정 배치</li> <li>· 지붕 상부에 건조대 설치</li> <li>· 공간위계 - 1, 2층으로 여자, 노인, 아동 공간과 손님접대공간을 나눔</li> </ul>

지되어 개방성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불리해 졌다. 하지만 중앙에 위치한 객당으로 인해 동선의 분배뿐만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활용적 면에서 효율적인 공

간구성을 보인다.

③ 가변성

도시형 한옥은 기존의 반가에서 볼 수 있었던 마당과 대청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청은 앞뒤가 개방된 공간이 아닌 한쪽면만 개방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미서 기문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반가에서 볼 수 있었던 가변성은 퇴색되었다. 이농주택 또한 기존의 사합원에서 볼 수 있었던 중정을 통해 개방성과 각 실의 배열을 통해 폐쇄성이 공존하는 형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안에서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실간의 가변성은 유지되어 실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6) 반가(연경당) 평면 출처: 주남철(1983), 창덕궁 금원 연경당(1) 우리의 전통건축, 월간 건축문화, 25(75).  
 17) 사합원의 평면 출처: 김민규(2005), 한·중 집합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p. 17  
 18) 가회동 도시형 한옥 평면 출처: 김경환(2007), 한·중·일 전통도시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p. 73  
 19) 이농주택 평면 출처: 한필원(1998), 중국 상해 이농주택의 시기적 변화와 그 방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4), p. 179



#### ④ 확장성

도시형한옥과 이농주택은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필지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수평적인 확장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주택은 수평적인 확장 대신 수직적인 확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후기의 2~3층의 이농주택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 ⑤ 도시형한옥과 이농주택 공간특성 비교정리

도시형한옥은 반가에서 볼 수 있는 ㄴ자 형의 안채에 사랑채와 행랑채가 압축된 형태의 ㄱ자 혹은 일자형의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이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고, 별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던 측간이 문간채의 한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다. 이농주택은 일체화된 세장형 주택으로 2층 혹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합원에서 볼 수 있었던 중정의 모습과 기능이 천정과 객당으로 변형된 형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 배치와 구성 및 용도는 사합원의 좌우대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IV. 결 론

한국과 중국은 근거리에서 위치한 이웃나라로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의해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의 두 도시의 전통주택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상하이의 중세에서 볼 수 있었던 반가와 사합원은 근대화, 도시화의 진행과정에서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이 개발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공간 분화와 공간구성은 생활환경에 맞춰 퇴색되거나 함축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계획되어진 도시의 제한된 필지에서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결과일 것이다. 이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형성된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차이를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반가와 사합원의 배치는 풍수이론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해석과 사상으로 인해 반가는 자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중요시 하여 좌우 비대칭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사합원은 천자사상에 의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좌우대칭의 특성을 보인다.

두 주택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도시형 한옥은 형태와 배치개념이 함축되거나 변형되어 새로운 해석에 의해 도시형 주거로 변화한 반면 이농주택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공간 구성에 따른 개념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반가의 동선은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합원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여러 개의 마당을 가진 반가는 순환형 동선 체계로 다양한 동선이 형성된다. 이에 반면 사합원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방향 동선체계를 보이며 이를 중심으로 각 실로 분배가 되는 형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형 한옥에서 여러 개의 마당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다양했던 동선 또한 마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사합원은 수직 동선이 추가되는 특징을 제외하고 사합원의 동선체계가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반가와 사합원의 공간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반가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등 성별과 신분에 의해 철저하게 분화되는 반면, 사합원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사합원 역시 성별과 신분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과 다르게 담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이 아닌 중정을 기준으로 형성된 건물 단위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도시형 한옥은 봉건사회가 붕괴됨에 따라 성별과 신분의 구분이 사라졌지만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된 구성형식에서 명맥은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이농주택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분화되었던 공간 분화의 개념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반가와 사합원의 공간의 가장 큰 특색의 차이점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들 수 있다. 개방형 주택인 반가는 여러 개의 마당과 각 채에 설치되어 있는 대청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으며 폐쇄형 주택인 사합원은 하나의 중정을 건물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배타적인 성격을 들어낸다.

이러한 특색은 도시형 한옥과 이농주택으로 변화하면서도 유지되었다. 도시형 한옥은 기능이 압축되어 여러 개의 마당이 하나의 중정으로 압축되어 폐쇄형 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정과 연계된 대청을 통해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이농주택은 중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천정으로 오픈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쇄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서울과 상하이의 전통주택은 문화와 사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같은 풍수이론을 받아들인 주택임에도 다른 환경에서 통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전통주택을 통해 서울과 상하이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의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서울과 상하이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두 도시의 주택 발전에 있어 서로의 본질적인 문제와 생활환경의 특성을 통해 두 도시의 주거환경의 발전에 필요한 배경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강인호, 한필원(2000),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 손세관(2002), 넓게 본 중국주택, 열화당.
3. 조전환(2008),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4. 진옥성(2008), 중국문화, 중국의 어제와 오늘, 세종출판사.
5. 주남철(1983), 창덕궁 금원 연경당(1)우리의 전통건축, 월간 건축문화, 25.
6. 김민규(2005), 한·중 집합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경환(2007), 한·중·일 전통도시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배용성(2005), 한, 중, 일 ‘口 자형 전통주택’에 나타난 실내공간의 동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신경화(200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작품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239-242.
11.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관한 지리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2. 임창복, 김경환, 기성광(2006), 한·중·일 전통도시주거의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2), 59-66.
13. 한필원(1997), 중국 북경 사합원의 공간구성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3(11), 193-203.
14. 吳煥加(2003), 中國建築·傳統與新統, 東南大學出版社.
15. 沈福煦 外(2003), 建築藝術風格鑒賞-上海近代建築掃描, 同濟大學出版社.
16. 毛佳樑(2005), 上海傳統民居,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7. 曹 炜(2004), 開埠后的上海住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8. 婁承浩, 薛順生(2003), 老上海經典建築-上海老建築8書, 同濟大學出版社.
19. 丁俊清(2008), 江南民居,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 중국포탈사이트: <http://www.baidu.com>
21.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접수일(2009. 6. 26)

수정일(1차: 2009. 8. 31, 2차: 10. 8)

게재확정일자(2009. 10. 20)